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조성 강화

방심위, 불법·유해정보 23만건 삭제... 성매매·음란이 33.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 23만8246건을 삭제하거나 차단했다.

삭제 및 차단 등 시정요구 건이 2017년 대비 181%로 급증한 것은 방심위 창립 이래 첫 사례다. 2017년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적체된 민원 해소를 통한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조성 등 '위원회 정상화' 과제를 적극 수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이 18만7980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9%를 차지했다.

전체 시정요구에서 '접속차단'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를 국내법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는 불법정보 유통 수단으로의 해외 웹서비스 악용으로 보고 불법정보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해외 사업자와의 다각적 국제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7만19710건으로 33.4%를 차지했다. 도박정보는 6만13435건으로 26.6%,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4만19250건으로 20.7%다.

국내사이트는 카카오, 네이버, 디자인사이드, 해외사이트는 텀블러, 트위터, 구글 순으로 불

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됐다.

이 중 텀블러가 4만5814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다음으로 트위터 2만1821건, 카카오가 8634건으로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랐다.

특히 텀블러와 트위터는 '성매매·음란정보'의 시정요구가 각각 4만5291건(98.9%), 1만712건(51.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카카오의 '기타 법령(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등) 위반 정보'는 6080건(70.4%)으로 이에 대한 시정요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방심위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려고 2012년부터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 사업자를 기존의 51곳에서 61곳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정보 대응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지난해 정보 1만1886건 삭제 등 사업자의 자율조치가 이뤄졌다.

방심위는 또 텀블러가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려고 2017년 12월 텀블러 본사 방문, 2018년 6월 화상회의 등 다양한 업무

협의 진행, 불법정보 공동 대응 등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텀블러는 지난해 12월 성인물 전면 금지의 자체 지침 개선을 표명했다. 방심위는 실제 최근 음란정보 유통 감소를 확인해 지속적으로 추이를 파악할 계획이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 긴급 심의 제도 도입 등 강력 대응한 결과, 전년 대비 시정요구가 2017년 2977건에서 2018년 1만7371건으로 약 5.8배 늘었다. 처리 기간도 2017년 10.9일에서 2018년 3일 이내로 단축했다.

급속도로 전파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특성상 피해자 구제를 위해 초기 유포사이트를 포함해 불법·음란사이트에 대한 광범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고 기숙사 불법 촬영' 등 사회 현안 사항도 선제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방심위는 제한된 여건에서 디지털성범죄정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담조직 확대, 사후 모니터링 강화, 사업자에 대한 자율조치 요청, 24시간 심의, 국내외 유관기관·사업자 협력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인력과 예산 확보도 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순창군립도서관 김주연 수채화전 전시 작품.

순창 대표 커뮤니티 공간으로 우뚝!

순창군립도서관, 28일까지 김주연 수채화전 열어

순창군립도서관이 인문독서 공간뿐만 아니라 유명작가의 전시회도 병행하며 순창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우뚝 섰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도서관 1, 2층에서 '김주연 수채화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전인 지난 2일에는 문화강좌실에서 김주연 작가와의 만남도 가져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김주연 작가는 개인전 36회와 국제교류전, 초대작가전 등에 다수 참여하며 열정적인 창작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수채화가로 대한민국회화대상전 대상 및 평화예술제 국회의장상, 세계여성 미술대전 최우수상 등 화려한 수상이력도 돋보인다.

특히 아름다운 감성과 시선으로 내면의 심상을 잘 표현하며, 물감의 농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번짐을 사랑하는 화가로도 유명하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 전북지역의 서정을 담은 '겨울이야기'와 봄을 기다리는 소망을 담은 '꽃'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담을 주제로 한 생동감 넘치는 '기본 좋은 날'과 다양한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김 화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열정적이고 과감한 터치로 고희의 향수를 담은 작품들로 관람객들에게 치유와 긍정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 관람객과 작가와의 소통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림을 어렵게 생각했던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김 화가가 지난해 순창으로 귀촌하면서, 이번 전시회가 재능 기부형태로 성사된 터라 지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정형 군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책을 보고 즐기는 공간에서 벗어나 미술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적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싶다"며 이번 전시회 취지를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멋스러운 한복 입고 전통문화와 예절 배웠어요”

전주시, 생활 속 한복문화 확산 위해 초등학교 대상 한복체험 교육 진행

전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한복문화 확산을 위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복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전주시와 전주교육대학교(총괄 실과교육과 최경은 교수)가 함께 진행하는 '초등학생과 함께 하는 한복체험교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주시 지역 초등학교 중 교육을 신청한 10개 초등학교를 찾아가 한복 교육과 예절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교육대상은 한들초, 조촌초, 북초, 오송초, 인봉초, 부실초, 풍남초, 금암초, 신성초, 중앙초 등 10개 초등학교 3~4학년 800여명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전통한복의 특징과 우수성 △한복의 종류와 명칭 등 이론 수업과 △남녀 한복 입는 방법 △절하는 법 및 예절 교육 △공중의상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 등으로, 초등한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전통놀이와 결합해 한복과 전통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한복 교육에 참여한 오재후 학생(오송초 3학년)은 "친구들과 평상한복과 궁중에서 입는 관복을 직접 입어보며 우리 한복의 멋과 색상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함을 알게됐다"며



전주시가 생활 속 한복문화 확산을 위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복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공손하게 절하는 예절도 배웠기 때문에 이번 설날에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께 꼭 한복을 입고 세배를 드릴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초등학교를 찾아가 진행되는 한복교육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한복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교육 후 피드백을 통해 더욱 체계화된 한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문문화 자원인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한복다올마당을 통해 다양한 한복 콘텐츠를 발굴해오고 있으며, △매주 넷째 주 토요일 경기전 관람료 감면 △한복문화주간 한복행사 △한복 특목&타 등 다채로운 한복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한복의 생활화·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송효철 기자

리틀엔젤스 예술단, 초등 1~5학년 신입단원 모집

리틀엔젤스 예술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1962년 창단 이래 세계를 무대로 한국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단체로 예술 꿈나무들의 세계 진출을 돕고 있다. 지난해 배정해 상임안무가 취임 뒤 신작 '비밀', '궁'을 선보였다. 동문으로 유니버설발레단 문훈숙 단장, 성악

가 신영옥, 장교연주가 김덕수, 아나운서 출신 MC 박은영, 탤런트 황정음과 박한별 등이 있다. 무용과 노래에 소질 있는 초등 1~5학년 어린이가 대상이다. 22일까지 리틀엔젤스 홈페이지에 원서를 접수한 후 23일 오후 1시 오디션에 응시할 수 있다.

/뉴시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